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6호 [루게 제24759호] 주체10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친근한 동지

나는 당신께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창건 39돐에 즈음하여 나에게 열렬한 축하와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 조그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되어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한편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발전에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송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썬 말 리 싸 이 나 쏬**

2014년 12월 4일

비엔티안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스위스단체들이 선물을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스위스 선물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가 공중으로 선물을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6일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인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책임자 마

르틴 뢰체트가 이 나라 주체 우리 나라 대사관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에 쏟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위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전 기간 지구돌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의 강행군으로 수십만리 외국방문의 길을 이키시며 우리 민족사와 세계정치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장장 수십성상 우리 혁명을 명도 하시면서 당, 국가, 혁명무력건설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반 제반미제결전의 최전선에 계시면서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과 인류의 심장속에 인민의 최고화신, 혁명의 대성인으로 영생하신다.

달리는 아전열차를 집무실로, 속소로 삼으시고 높고 험한 산과 평을 넘고 넘어 오신 나라 가정과 마을, 초소와 일리마을에 남긴 사랑의 일화, 전설들에게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간직되어있다.

은혜로운 태양의 해빛은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았고 사상과 리념, 인종과 민족, 계도와 국경을 초월하여 대륙과 대양을 밝게 비치였기에 위대한 대원수님을 우러러 더치는 위대한 찬가들은 온 행성을 뒤흔들며 더욱 높고 울려다졌다.

가장 숭고하고 열렬한 사랑으로 만민을 환유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 인류의 심장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천만년 무궁토록 영생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결출한 령도자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직 고문교양상 태형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력량을 마련하신 결출한 정치적가이시다.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어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비상히 높여나가시었다.

주체혁명의 혁명적당파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천만군민의 철같은 일심단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물려주신 혁명유산이며 최후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주체조선의 제일가는 국력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와 거창한 혁명철학으로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시고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김일성민족

의 위대한 정신력을 심어주시고 강계 정신, 성장과 라남의 봉화, 함남의 불길과 같은 시대정신이 편이여 창조되도록 이끌어주시는 정력적인 령도자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국가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주체철, 주체심유, 주체비로가 쏟아지고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새 세기 산업혁명을 안아온 CNC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비롯하여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기적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와 끝없는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령도의 계승 문제를 가장 리상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신 불세출의 령도자이시다.

주체의 혈통을 영원히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으로 굳건히 이어 주시고 최후승리의 결정적담보를 마련해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김일성정치대학 학장 차경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인민군대를 세계최강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세출의 선군정령》이라고 화제의 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인민군대를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정신력의 최강군,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로 억 세계 키워주시는 평군의 거장이시다.

전군김일성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 목표로 내세우시어 혁명강군건설의 불멸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시였으며 군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인민군대의 혼연일체를 백방으로 다져주시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자폭정신으로 만장약된 천만의 총폭탄대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몸과 정을 기울이고 품어들어 마련하신 천하제일의 군력이며 주체의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절세위인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인민군대를 어떤 강적도 일격에 타승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군력을 지닌 군사기술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천출명장이시다.

인민군대를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군대,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만드는데는 군력강화의 목표로 내세우시고 맘에 절은 아전부과없이 단발숄트차림으로 빨찌산식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명장의 담력과 배짱으로 단행하신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와 핵실험의 성공

들은 사대와 망국으로 수년많은 민족사에서 중지를 찍고 선군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 아래로 세운 특대사변으로 된다.

토론자는 인민군대를 세계최강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워주어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리한 수호자, 백두산천출위인의 민족사적정력은 길이 빛날 것이며 위대한 장군님은 김일성민족, 조물들을 비롯하여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기적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와 끝없는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령도의 계승 문제를 가장 리상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신 불세출의 령도자이시다.

주체의 혈통을 영원히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으로 굳건히 이어 주시고 최후승리의 결정적담보를 마련해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김일성정치대학 학장 차경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인민군대를 세계최강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세출의 선군정령》이라고 화제의 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인민군대를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정신력의 최강군,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로로 억 세계 키워주시는 평군의 거장이시다.

전군김일성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 목표로 내세우시어 혁명강군건설의 불멸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시였으며 군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인민군대의 혼연일체를 백방으로 다져주시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자폭정신으로 만장약된 천만의 총폭탄대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몸과 정을 기울이고 품어들어 마련하신 천하제일의 군력이며 주체의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절세위인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인민군대를 어떤 강적도 일격에 타승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군력을 지닌 군사기술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천출명장이시다.

인민군대를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군대,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만드는데는 군력강화의 목표로 내세우시고 맘에 절은 아전부과없이 단발숄트차림으로 빨찌산식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명장의 담력과 배짱으로 단행하신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와 핵실험의 성공

##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애국 헌신의 장정을 이어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송고한 품도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당대표단 단장들속에서도 뜨겁게 분출되어왔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 단장 낭골로 음불바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입없는 헌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조선인민이 누리는 오늘의 참다운 행복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이를 높이 모시어 조선인민은 위대한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메히코로동당대표단 단장 라우라 홀리야는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의 한평생이였다.

그이께서 근로하는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는 진정한 삶의 요람을 마련해주시였기에 조선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확고한 대가정을 이루고 살았었다.

참으로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 인간사랑의 화신이신 김정일동지와 같은 령도자는 동서고금에 없다.

몽골인민당대표단 단장 프. 멩흐바트르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다.

조선의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그이께서 인민들에게 배부른 뜨거운 은정을 깊이 느낄수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평양시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고층살림집들,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들,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보면서 그이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것을 절감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정치는 위대한 헌신을 낳은 창조적 원천이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대표단 단장 바셀레 오를레야누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불면불휴의 활동으로 조선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전환시키시었다.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쌓으신 업적은 진보적인 인류를 경탄시키고있다.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선인민이 더 큰 번영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시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고층살림집들,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들,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보면서 그이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것을 절감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정치는 위대한 헌신을 낳은 창조적 원천이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대표단 단장 바셀레 오를레야누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불면불휴의 활동으로 조선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전환시키시었다.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쌓으신 업적은 진보적인 인류를 경탄시키고있다.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선인민이 더 큰 번영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 로동당시대의 번영기를 안아오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



안변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9(2000)년 11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9(2010)년 1월



은물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4(1975)년 6월



서해갑문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3(1984)년 4월



김일성경기장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1(1982)년 2월



새로 건설한 병상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0(1981)년 11월



새로 건설한 평양산원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9(1980)년 2월



새로 건설한 창광원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9(1980)년 1월



새로 건설한 창광거리 살림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9(1980)년 9월



인민대학습당 모형사관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8(1979)년 12월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9(2010)년 7월

# 만대에 빛나라, 절세위인의 총정이 깃든 태양의 성지여!

## 금수산태양궁전이 전하는 수령영생실록의 3년사를 삼가 펼치며

세상의 밝은 빛이 여기에 모인듯 수도 평양의 금수산기념관은 눈부시다. 격동의 20세기 가 낳은 회색의 대성인들, 인류역사의 어제와 오늘만이 아니라 배일까지도 대표하는 가장 절충한 위인들을 모신 태양의 집이 자리잡고있어 금수산기념관은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빛나게 하여야 합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고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며 승리의 상징입니다.»

12월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인민의 마음은 더없이 숭엄하고 추억도 뜨겁다. 광장공원의 한그루 나무마저 무심히 대할수 없는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의 지난 3년의 낮과 밤들은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위업



태양궁전광장에서 잔디심기는 사실 그전에 벌써 시작된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고사령부 정원에 있는 시험포장에 잔디를 심으시며 잔디씨뿌리기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새 품종의 잔디를 심고 가꾸는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기때문에 힘을 들이시며 마음먹고 달려라하면 능히 할수 있다고, 이제 어느 단위가 잔디를 잘 키우는지 경쟁을 붙이겠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것을 제기로 궁전광장은 잔디심기 경쟁바람이 일었다.

그날 수시로 잔디밭 관리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잔디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자재들까지 직접 말아 해결해주시며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에 떠받들려 드디어 광장은 푸른 잔디가 펼쳐졌다.

전국각지에서 우리 인민들이 뿌리 하나 상할새라 한그루한그루 성의껏 그리고 골라 보내온 나무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지내길 뿌리박았다.

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바치신 고결한 총정의 실록,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수령영생실록이다.

### 피눈물의 12월이 전하는 이야기

주제 100 (2011)년 12월 17일, 온 나라를 피눈물에 젖게 하고 하늘도 땅도 몸부림치던 한 비분의 소식을 아작은 이 나라 인민 누구나도 알지 못하고있던 날의 아침이였다.

몇명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밖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급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는 일군들의 손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조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2월 24일에 즈음하여 진행하게 될 경총행사준비와 관련한 문건들이 들려있었다.

그런데 언뜻나 정력에 넘치시어 일군들을 맞아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침묵한 표정을 지으시며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방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침묵도 침묵...

동무들에게 급히 달려올 문제가 있어서 불렀고, 이제 동무들에게 하려는 무너지고 땅이 꺼졌던 같은 청천벽력의 비보를 전하겠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물에 젖은 말씀에 일군들은 귀가 멍멍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떨리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 너무나도 무리하게 강행군길을 걸으셨을것이다. 오늘 새벽에도 북방에 대한 현지지도를 가시다가 8시 30분에 야전병원에서 애석하게 우리들을 떠나시였었다. ...

너무도 억이 막힌 비보에 일군들은 몸부림치며 통곡하였다. 슬픔과 비분을 간신히 누르고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무들마저 이르러낸 어찌라는가고 통렬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가라 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런 때일수록 동무들이 맥을 놓지 말고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디다. ... 일군들은 가까스로 슬픔을 썩어삼켜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랐다. 누구보다도 크나큰 괴로움을 겪고계신 그이시건만 조국과 혁명에 있어서 더없이 중대한 이력사적시각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서는 이미 새로운 위대한 력사의 태동이 시작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 (당시)에 함께 모시기로 결심하였다고 결정하면서 더욱 확고한 의지가 차넘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수령의 서거후 령구를 어디에 모시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령의 령구는 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장 빛나게 유력할수 있는 력사적인 장소, 수령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과 도덕의리미이 가장 열렬하게 펼쳐질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한평생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과 위인상으로 보아도, 어버이장군님의 가장 충직한 전우이셨던 우리 장군님의 총정, 한평생을 보아도 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윤명한 태양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에도 보아도 장군님을 수령님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시는데가 가장 옹양하다. 결심을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17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병원에서 순직하신 비보를 알려주시였다. 여기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장례행사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실때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 나라 인민모두의 슬픔을 다 합친것보다 더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바치신 고결한 총정의 실록,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수령영생실록이다.

주제 101 (2012)년 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간절한 요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엄숙히 공포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다.»

뜻깊은 그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공문결정이 온 나라를 격동시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기념성, 김정일조선을 상징하는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영구존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는 또 하나의 력사적 사면으로 온 세상을 놀래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이 세상 각 어디에 수령영생에 관한 이런 법정이 있는가.

지극히 위대한 위인들을 위하여 세우려던 비극적사실들을 력사는 기억하고있다. 하지만 위대한 태양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빛을 뿌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동서고금을 찾아볼수 없는 수령영생위업의 력사가 뜻깊이 이어져가고있다.

### 세상에 없는 태양의 성지

력사에는 이름난 기념당이나 성지들, 신전이나 토포들이 있다. 그러나 금수산태양궁전처럼 모든 면에서 태양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울만큼 그렇듯 완벽하고 훌륭한 궁전, 그날도 신성한 성지는 이 세상 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주제 101 (2012)년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된 이후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안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또다시 훌륭하게 꾸러진 태양궁전을 돌아보고 놀랐다.

그해 1월 어느날이었다. 세한 바람과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금수산태양궁전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궁전전면에 모시라고 하시면서 그 형상방법과 위치설정문제 그리고 액를 밑부분에 무관꽃장식과 월계수잎을 형성하는 문제로부터 액를 돌질감이 나게 하는 문제에도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였다. 낮에도 오고 밤에도 계시면서 태양상을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얼마나 심혈을 바치셨던가.

금수산태양궁전의 수령영생실록에는 주제 101 (2012)년 6월의 있을수 없는 밤의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년초부터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와 남조선피괴화쟁들의 반공화국소동으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참으로 준엄한 시기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있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는 사업은 한치도 드릴수 없는 최고의 중대사였다.

그날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금수산태양궁전앞에 조용히 차를 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오패도록 바라보고도 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은 낮에 비워도, 밤에 비워도 한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져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습은 밝고 환하신 태양상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의 림상훈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림상들과 울음흔의 붉은 기록속에 모신 대원수님들의 밝고

자이로운 모습에도 낮과 밤을 지새우시고 계시니도 전신으로 오로지 대원수님들을 총정대해 모시기 위해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총정이 비껴갔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사람들은 사적 령차와 승용차, 사적배보존실에서 힘겨움을 느끼지 못했다. 집무를 보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잠시 자리를 뜨신것만 같은 령차, 푸른 물결기를 일으키며 또다시 군인들과 인민들을 찾아 떠날것만 같은 배, 이 세라도 부름 받들고 걸고 현지지도의 길을 달릴듯있는 승용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너무나도 눈이 뜨기 어려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적 물들이여! 우리 금수산태양궁전에 옮겨지려 된때는 또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 어있었나.

금수산태양궁전에 깃든 수령영생위업실현의 력사적사실들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한 일군의 회상자료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주제 101 (2012)년 12월 초 어느 깊은 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치지 않았고 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 나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적 령차가 보존되어 있는 곳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소중히 안으시고 령차에 오르신것이였다. 그러시고는 야전복과 야전승용을 옷걸이에 걸 어놓으셨다. 보일러인 장갑을 열쳐대우에 정히 놓으셨고 한아름 되는 문건을 집무 탁으로 가져가시였다.

책상에 다가가시어 탁상등과 컴퓨터, 시계, 안경, 제털이, 필기도구를 제자리에 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활발하신 친필이 새겨져있는 하나하나의 문건을 거름거름 눈여겨보시다가 그것을 책상에 쌓아놓아도 보시고 조금씩 모아 펼쳐놓아도 보시는데였다.

원수님을 바로도 돌아보시고 사선지계 놓아보기도 하시며 안경을 접어도 보시고 그대로 놓아도 보시며 또 그러시다가 의자를 책상가까이로 당겼달았다하시기를 그 몇번이.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을 그리시며 령차안의 여기저기를 오가기도 하시었고 밖으로

나가시어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시였으며 또다시 령차에 오르시어 놓친것이 있을새라 마음쓰시는 원수님.

이윽고 령차밖으로 나오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령차내부에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옷과 신발, 문건들을 이렇게 가져다놓으니 장군님께서 금시라도 령차안으로 들어서실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두의 가슴에 뜨거운 격정이 일어났지였다. 사람이여, 그들은 다 아는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야전령차에 계시며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영원히 새겨주시며,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더 높이 울려주시며 우리 원수님 온 나라가 다 잠든 깊은 밤 이렇게 지새우실줄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리용하시던 《총성》호는 건조된지 오랜 배에서 일군들이 몇번이나 새 배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양하시며 30여인동안 《총성》호 배를 리용하시였다. 주제 99 (2010)년 1월 어느날인가는 사나운 풍랑속에서 배가 그대로 얼음산처럼 변하여 장군님께서 계시는 집무실문을 선원들 모두가 달려붙어서야 겨우 열었다는 눈물겨운 사연도 안고있는 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눈물겹게 전하는 《총성》호를 궁전에 옮겨올때 대한 구상을 하시고 구체적인 방도에 대하여서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주제 101 (2012)년 11월 어느날 사적배보존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배를 가져다놓기 정할 잘하였다고, 얼마전까지도 이 배가 바다에 떠있었는데 오늘은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 수령 영생의 대화원, 사회주의대가정의 뜨락

지난해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뵈러오기 몰림듯이 광장으로 들어서신 사람들앞에 회한한 광장이 펼쳐져있었다.

부드러운 주단처럼 펼쳐진 과란 잔디밭, 함초를더 물기를 머금고 빨강과 파랑도 노란 갖가지 색깔의 진귀한 꽃들이며, 몇몇인 잘 자란 벼들과 구기수들을 형성한 조각상을 중심으로 조화를 부리며 솟구치는 분수, 몇몇이저게 꾸러진 휴식장소들...

보는것만이나 부시고 황홀하여 감탄하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넘친것은 이 세상 으뜸의 공원을 꾸러주시어 대원수님들과 언제나 함께 있고싶어하는 우리 인민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격정이였다.

태양의 성지를 수령영생의 대화원, 인민의 공원으로! 이것이 피눈물의 12월에 벌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00일장우모 대회가 끝난 후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일군들에게 금수산태양궁전주변에 목지를 잘 조성하여 궁전광장에 수종과 수형이 좋은 나무와 꽃들을 많이 심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말그대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신 태양의 궁전인데만큼 인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곳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게방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이 우리 인민들이 찾아가고싶으면 아무때나 찾아갈수 있는 곳으로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사실 광장에 화원을 조성한다는것은

금수산태양궁전에 와있다고 젓으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이제는 장군님께서 리용하신 배까지 들여다놓았으니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셈입니다. ...

지금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은 배를 통채로 옮겨온 현실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원수님께서만이 세상에 없는 이런 기적을 창조하시수 있었나.

최대의 정중성과 최상의 수준,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삼신 절대적기준이였다. 외왕을 비롯한 태양궁전의 여러곳들에 모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사진화면을 한상한상에도, 전시되어있는 훈장, 메달들과 사적물들 하나하나에도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이 어려웠다.

물소 도안까지 그려가시며 태양궁전을 사소한 손색도 없이 꾸리게 하신 사실, 대원수님들의 사적문헌들의 액를액까지가 해부해주시고 사진화면의 영구보존문제에 대하여 세심히 관심하신 사실, 태양궁전의 벽체와 바닥들의 재질과 색깔, 문양 그리고 문손잡이와 장식세부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신 사실...

진정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원불멸할 업적과 절세의 위인상을 모신 민족의 가슴깊이 새기고 온 세계가 똑똑히 알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펼친 혁명의 대전망이며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다.

### 수령 영생의 대화원, 사회주의대가정의 뜨락

누구도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문제였다. 지금까지 틀이 있는 성지라고 하면 누구나 그곳부터 엄숙하게 꾸려야 한다지만 생각 해왔기때문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놓으신 발기는 일군들의 눈을 반짝 띄워주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수종과 수형이 좋은 나무와 꽃들을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기에 여러가지 종류의 잔디를 심어 글드 새길수 있고 문양도 새길수 있다고, 금수산태양궁전주변에 목지를 조성하고 사이에서 길을 내주며 사람들이 앉을 자리에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그 방도에 대하여서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영생하신다는 는 나라 인민의 순결무구한 심정까지 합친 우리 식의 새롭고도 독특한 명안이었다.

사람들이여, 공원에 설치되어있는 야외의지대 그늘덕데, 정원들, 분수조각 하나하나를 결코 무시하지 마시라. 그 하나하나에 해마될수 없이 많은 설계형성안들을 수시로 보아주시고 수정까지 해주시며 심혈과 소신을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손길이 깃들여있었다.

금수산시가지의 넓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푸른 잔디와 더불어 전해지는 이야기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준다.

잊지 못할 주제 101 (2012)년 9월 30일, 그날은 휴식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있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나오시였다. 먼지와 돌가루가 여기저기에서 날리고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광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제 심게 될 새 품종의 잔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에 언제나 아름답고 싱싱하게 피어나 길은 향기를 풍기는 찬송이찬 송이도 정녕 무심히 볼수 없다.

주제 101 (2012)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궁전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밖에는 아직 찬바람 불어치지만 봄을 먼저 알리듯 이맘때가 되어나 꽃송이를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던 꽃이라는것과 철을 앞당겨 피우기 위해 한일군들과 인민들의 지성에 대하여 로해하신 그이께서는 앞으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꽃을 쓸 일이 많았것만큼 빛과 온도, 습도조절을 비롯한 모든 관리운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여있는 최첨단설비인 무공해온실설비를 보내주시겠다고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현대적인 온실을 마련해주시고도 부족하진 않든 그후에도 여러차례 온실과 관련한 기술사적들과 여러가지 종류의 귀한 꽃씨들, 식물약재들도 보내주시며 마음쓰신 경애하는 그의 세심한 지도가 있어 금수산시가지가 백화만발한 꽃속에 물거품이 되었다.

비오는 날에도, 찬눈비내리는 날에도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른 새벽에도 찾아오시었고 궁전을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방안이 떠오르시면 즉시에 차를 달리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광장공원의 관리사업에 필요한 문헌자료들을 보내주시고 합장강령공사를 잘하도록 관심있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원수님께서 태양궁전을 훌륭히 꾸리기 위해 기울으신 로고에 대하여 말하면 끝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언제나 금수산태양궁전이 딱 차있었다.

원림설계에서는 따를 사람이 없다고 거부해오던 외국어의 이름있는 전문가가 광장공원을 돌아보고 너무나 감동되어 머리를 수그렸었다. 이야기를 어떻게 무심히 들을수 있었는가.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단순히 건축예술의 산물이 아니라 수령에 대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총정과 승고한 도덕의리미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 대대처럼 흐르는 혁명의 성지라고 하시면서 태양궁전을 훌륭히 꾸리는데 지성을 바친 천재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 진정 그것은 들을에도 꽃을 피우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극한 총정과 똑같은 수령이 펼친 수령영생의 대화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함께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의 가장 넓고 아름다운 뜨락이다.

### 피눈물의 12월부터 한해지한께 가슴 뜨겁게 수놓아져 온 금수산태양궁전의 3년 실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거대한 공적을 남긴 혁명의 령도자를 영원한 모습으로 모시는 사업이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발전에 있어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결정적인 문제로 되는것인가를 인류앞에, 력사앞에 다시금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아들딸들이여,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꾸려주시어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말고 살아야 할 민족정신의 근본을 우리 겨레의 심장속에 똑똑히 심어주시고 민족민대의 변명을 위한 구실점을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민족사적공적을 자자손손 영원히 잊지 말라!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천년만년 길이 빛내이고 목숨으로 사수하시!

글 복사기자 백영 III 사진 복사기자 리충성

#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가리 현대화의 가치를 높이 추켜든 개혁의 대오

사람들은 조선인민군 2월 20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그처럼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같이 환한 영상이 지금도 눈에 선할것이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통학생 산관리체계가 특별히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 그러도 높이 평가하신 통학생 산관리체계, 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홍길동》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려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순결한 지향과 불타는 열정의 산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동장이며 우리 나라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입니다.》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다시한번 도약하여 더 큰 성과를 이룩하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가 세상에 다시없는 금언중의 금언으로 두각이 아로새겨져있다.

도약하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세계를 딛고 오를 그날을 향하여 도약하고 오 도약하자.

이런 비전과 각오와 맹세를 현대화의 눈부신 실연으로 빛내어 온 3년이었다. 교육사업과 과학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연구사업에서 현대화의 가치를 높이 들고 뒤임없이 줄달음쳐온 그 1000여일간의 대학에서는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기술적인 성과의 밀바람에는 반드시 묘수가 있기 마련이다. 지난 9월 초였다.

북창화학발전연합기업소에서는 튜브관 형의 회가 진행되었다. 기업소의 기술자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책임일군들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전력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주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토론하였다.

이렇게 대학의 책임일군들이 당정책목표의 앞장에 서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니 어찌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지 않을 수 있랴.

즉시 대학의 여러 학부들에서 100명의 교원, 연구사들이 북창으로 달려나갔다.

여기에서 양기철동무를 비롯한 과학연구부 일군들이 잘한것이였다. 현직지도교원을 파견하여 수습진전의 대장파제수행으로 드바쁜 교원, 연구사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잘 짜고든것이였다.

일반적으로 현직에서의 과학연구사업은 많은 애로와 난관을 동반한다. 그중에서도 리론적으로 가능한것이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되곤 하는것이 제일 난문제였다. 대체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면 교원, 연구사들이 대학으로 돌아와 결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시 나가곤 하는것이 상례였다. 그때마다 같은 기간이 랑비되었다.

북창에서도 사정은 같았다. 전기공학부에서 개발한 전기기구들을 현장에 도입하고자보니 조건상특성이 다른것으로 하여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때 지도교원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즉시 대학과의 연계가 취해지고 긴밀한 협동작전이 벌어졌으며 결과 이 문제는 짧은 시간에 해결되었다.

이처럼 대학에서는 당의 의도와 요구를 제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신속정확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현대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는데 한 몫 단단히 이바지하였다.

평양기초식품공장, 고산과수농장, 3월 5일청년광산, 통성기계련합기업소와 인민군대의 식료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발전소들과 류경원, 만경대유지장, 평양산림과 류경구명원, 옥류야동명원 등가는 곳마다 애착된 탐구의 발자취가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 주었다.

온 나라에 타닌지는 현대화의 불길은 교육현대의 앞장에서 번갈고 있는 대학교육사업과 때 어울고 생각할수 없다.

### 900여점의 산업미술도안 창작

산업미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여러 산업미술창작단위와 생, 중앙기관의 창작가들, 여러 산업미술위원, 학생들, 여러 기관의 80여명 학생들에 대한 900여점의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산업미술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창작에 창작가, 교원, 학생들이 적극 열쳐나서도록 하였다.

조선산업미술창작사, 만수대창작사, 평양시산업미술창작사를 비롯한 여러 산업미술창작단위의 창작가들, 기계공업성, 식료공업성, 은하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생, 중앙기관의 창작가들, 평양미술대학, 평양인쇄공업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장천구역상업대학, 한덕수공업대학, 평양공예전문학교를 비롯한 교육단위의 교원, 학생들이 창조적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 각종 산업미술도안을 훌륭히 창작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 당의 후대사령의 승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일념

경애하는 김정일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변함없이 물려주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 서거 3년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와 살에 새기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산악같이 펼쳐나 최첨단물과정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갔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피타는 사색과 탐구의 날과 달을 줄기차게 이어온 나날

12월과 더불어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사자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 오 도약하였다.

《어버이장군님, 우리 수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발전의 선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과학기술성과의 앞날 열매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본사기자 김경철

무릅쓰고 출장을 떠났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고려연구소에 필요한 현대적분석설비들이 공장에 도착하였다.

분석설비들이 짧은 기간에 손색없이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공장에 이르러 엑스의 성분분석을 위해 고교약의 효능을 보다 높일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되었다.

그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해마다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면서도 항상 주사약을 비롯한 여러종의 효능 높은 의약품들을 생산해 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현제 공장에서는 류동엑스를 건조제로 만들어 먹기에 편리하게끔 치료 및 예방에 좋은 교약약으로 제조하기 위한 전투를 마지막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그날의 맹세를 세대를 이어가며 굳건히 지켜가리.

강제고려약가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오늘도 이런 불같은 각오를 안고 고려약생산의 과학화,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만만한 투지에 넘쳐 계속 혁신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 부강조국건설의 제1번수들로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의 과학자들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수고했다고, 할 좋은것을 했다고 거듭 축하하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던 태양의 그 모습이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경제적인 의의가 큰 여러가지 과학기술개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여 현실에 도입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정령 그날의 교시는 과학이 단순히 과학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명실공히 혁명에 이바지하는 현실성있는것이 되여야 한다는 진리를 과학자들의 심장깊이 새겨주신 뜻깊은 가르치심이었다.

그날의 현지교시가 유훈이 될 줄, 충정의 보효를 장군님의 명령에 올리게 될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하지만 과학자들은 슬픔속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뼈

에 연구소에서는 강성조국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소장 박사 부교수 김성윤, 실장 박사 김영춘동무를 비롯한 연구진단은 우리 나라의 필기문자를 인식할수 있는 컴퓨터인식기를 훌륭히 완성하여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으니 부소장 박사 한광욱, 실장 박사 리성진, 연구사 윤성준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도 지분인식과 열공인식을 결합한 문자인식기술과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았다. 교수 박사 김두진, 실장 박사 김광호 동무들도 비선형분포계의 질적특성과 조종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수곡선의 유리적분산과 그 응용과 같은 수학기초론분야에서 큰결실을 내었어 최첨단의 높은 명마루에 올라선 우리 나라 기초과학기술의 위력을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다.

## 언제나 그날의 맹세를 지켜

강제고려약가공공장에서

이 평가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고려약생산의 과학화, 현대화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믿음어린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우리 인민의 전통의약품의 발전을 위해 주체 95(2006)년에 이어 또다시 공장에 찾아오시어 현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심장에 아로새긴 이곳 일군들과

2년전 어느날이었다.

현대적인 분석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출장을 떠나려던 지배인은 오랜전투의 땀과 피가 그간 도져 사무실에 쓰러졌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다시금 출장준비를 서두르는 그에게 종업원들은 앞을 막아내며 하루이틀사이에 끝낼 일도 아닌데 며칠간 안정할것을 권고하였다.

지배인은 아무런 대답없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 찾아오시어 남긴것 여러장의 사진 문헌들을 이윽도록 무르러뜨리시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 너무나 뜻깊게 서거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 우리 모두 어떻게 맹세하겠소?...》

그리고 나서 지배인은 아픔을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작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배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주에 즈음하여 민주대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동상에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카인민조작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배여왔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1일 꽃바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케니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케니아 공화국 대통령 우후루 케니아라 각하

나는 케니아 독립 51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밀린 축문이 주로 케사공화국

여기에 은 공석용 위무성 부상

동상에 꽃바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린 다음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던 나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활동으로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도 60돐 기념보고회

개성시 여러 단위에서 진행

를 잘 짓고 농촌을 훌륭히 꾸리며 분개연선지대의 특성에 맞게 군민일선의 진흥을 이룩하는 높은 열정을 보여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성시 인민위원회에서 당, 정권, 경제, 교육문화기관 일군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보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손길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60년간 시에는 방직, 피복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기업들과 지방공업기업들이 일떠서고 여러가지 질 좋은 제품이 생산되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으니 이같은 문화추진에 힘써 놓고 후방공업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충도사범대학(당시 충도정치경제대학)

서 정상화하며 버섯공장, 남해 온실 등을 실리있게 운영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켜나갔다고 말했다.

교육기관들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과학기술재원을 많이 키워내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리화할데 대한 당의 승고한 뜻대로 모든 산물을 원상복구하고 박연원천지와 공원들을 더 잘 꾸리며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력사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자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교직원, 학생들이 자기단위에 깃들여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적영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강성조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체스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1일 만수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밀린 축문이 주로 케사공화국

여기에 은 공석용 위무성 부상

동상에 꽃바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린 다음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던 나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활동으로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여기에 은 공석용 위무성 부상

동상에 꽃바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린 다음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던 나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활동으로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 말겨진 과업을 전투임무로 여기고

송림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어느날 지배인은 기술학습의 날 운영에 참가한 종업원들에게 말했다.

《동무들, 우리 영예군인들에게 진 어디 가나 싶지 않게 차려주고 좋은 좌석이 마련되어있습니. 당에서 우리를 내세워 주시고 언제나 사회의 존경속에 서 행보만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인민앞에 필요한 사람이요 알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나이다 드리고 지시수준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빠른 시간에 기술을 습득한다는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

수 있는 의견을 내놓았다.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참고서들을 보면서 배우고 서로 도우면서 끝내 원료를 재분할하는 비결을 찾아냈다. 이에 더해하여 그들은 송림영예대학의 교원들과 힘을 합쳐 기계들을 개조함으로써 생산량을 종전에 비해 훨씬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도 배마나 수승이 좋은 나무를 찾아 그루적 심어 공장주변을 수리화, 원리화해나가고있다.

공장을 방불케 하는 공장에서 어제날의 병사들이 올리는 생산상황의 등용은 오늘도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박옥별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빛내며 과학기술발전의 선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과학기술성과의 앞날 열매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의 범죄적 진상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무대를 어지럽히면서 강압통과시킨 대조선《인권결의》를 전면거부, 전면배격하고 그를 깃부서버리기 위한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한다는 것을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은 국제적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은 지금 저들의 범죄를 변호해보려고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그들은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국제사회의 노력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니, 《인권결의》가 《조선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타당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우려에 의해 다른 목적은 없다》느니 뉘니 하며 온갖 꾀변을 다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정의앞에 집결한 교활한 음모군들, 진실을 무시하려는 추악한 범죄자들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공포심의 발로로 서한 갖 구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라는 외피를 씌워 우리의 의지도 없는 《인권결의》를 정치화, 국제화하여 계단식으로 더욱 확대함으로써 사태를 극단으로 끌고가려는 악랄한 술책이기도 하다.

미국의 강권과 그에 적극 동조해나선 유엔동맹과 일본의 책동이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분할될 수 없고 맹종과 맹종에 몰렸어 허세비처럼 손을 든 나라들의 비굴한 처사가 《국제사회의 타당한 관심》으로 미화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인권상황을 《조사》한다고 하는 《위원회》를 유엔에 내오도록 한다는, 유엔같은 그 기구가 《탈북자》들이 주어짐을 악의와 비방증상으로 일관된 《증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만들도록 조종한 것도 바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유엔에 세계적범위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구들이 있어도 평화적이고 안정된 한 나라의 인권상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따로 내온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전범국가 아니고 분열국도 아닌 우리 나라를 상대로 하여 굳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내온 것 자체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한 모독이고

로골적인 도진일뿐 아니라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위주로 한 유엔의 활동원칙에 심히 배격되는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당동이다.

유엔은 69년의 역사를 기록하고있다. 이 기간 유엔이 권위있는 국제기구로서의 체모를 상실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이 특정한 나라와 세력의 통괄물로 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당사국과 대화도 나누지 않고 당사국에 대한 한차례의 방문도 없이 독선적인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으로 하여 유엔의 이름은 심히 어지럽혀졌다.

우리는 유판국들과 인권대화를 할 것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였고 판재성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도 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제기와 의견들을 모두 무시하고 짝자공이를 하면서 한사코 《결의》조작에 달라붙었다. 《조사위원회》는 뒤뉘방에 앉자 꾸며낸 허위날조와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에서 《결의안》을 강박과 회유, 기만과 매수의 방법으로 끝끝내 통과시킴으로써 유엔헌장에 완전히 어긋나는 불법비법의 날조품을 만들어냈다.

허위가 진리로 탐바꿈하고 불의가 정의의 침묵하는 력사의 회피구, 남강도적인 국권유린행위가 다름아닌 유엔무대에서 감행되었다.

모든 사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고 유엔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느 정도로 무참히 짓밟혔는가를 유엔으로 보여주고있다.

그 어떤 감언리설로도 감할수 없는 것이 이번 유엔총회 3위원회 반공화국《인권결의》조작의 범죄적진상이다.

이번 《인권결의》조작에 모든 나라들이 찬동해나선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인권현실을 잘 알며 정의의 지향하는 많은 유엔성원국들은 범죄적인 대조선《인권결의》조작과 채택을 전결히 반대하였다. 특별불가담은 동성원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인권결의》를 반대해나선 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이 국제사회의

의 비난, 배격을 받고있다는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국제사회의 노력》이니, 《관심》이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입박에 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 저들이 저지른 죄악이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이 이번 《인권결의》조작을 놓고 우리의 《인권결의》에 대한 우려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낯간지러운 소리를 늘어놓고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열리고 돌돌 빼려는 황당한 수작이다. 그러어 어찌구무는 꾀변은 추종국가들과 강권에 놀라워 허세비처럼 놀아난 나라들에 대고 뻘치는 것이 향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있지 않고 우리의 《인권결의》를 꾸며내고 정치화, 국제화하기 위해 그토록 악을 쓰고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여기에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고 용납하여서는 안될 극악한 범죄적목적의 숨겨져 있다.

첫째로 그 목적은 《인권결의》를 무기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12일 우리의 제3차 지하핵실험성공은 미국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약속한 선포인 동시에 오마마중권의 《전략적내외정책》에 내린 종말선고였다.

미국은 핵공갈에 기초한 압력과 강도높은 제재로도 우리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그로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들고나온 것이 바로 우리의 《인권문제》였다.

우리의 핵실험이 있는 다음날 미국회 상원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미행정부가 우리의 《대량살상무기개발》과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과 해당한 대안을 마련할것을 요구하는 《2013년 북조선전과방위와 책임법안》을 국회 상원에 발의하였다. 14일에 는 미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조선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엔《조사》기구설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우리의 제3차 지하핵실험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에서 궁지에 빠지게 된 미국이 이미전부터 준비해

오던 《인권문제》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모략전을 정식으로 개시하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의 초점을 단순히 우리의 《선 핵포기》가 아니라 우리 제도의 《집적변화》 즉 사회주의제도의 붕괴에 맞추었다. 미국의 계획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압살,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킬수 없다는 타산으로부터 세워진 것이다.

미행정부의 비호조종을 받고 남조선 피괴전과 깊숙이 편결된 미국 《북조선 인권위원회》라는 반동단체의 사무총장인 판자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조선 핵개발을 지지할수 없다》면 인권문제에서 하나의 돌과구를 마련할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정부가 유엔과 각국정부를 《북조선인권문제》에 동참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떠벌린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그때부터 미국은 핵위협공갈과 제재, 사상문화적침투뿐아니라 《인권문제》에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의 제1차적무기로 내세웠다.

《전쟁위공세》로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완전붕괴시키는것이 바로 미국이 대담히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실행해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새 골격이다.

둘째로 그 범죄적목적은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며 우리 혁명의 만능보검인 일심단결을 파괴하는 데 있다.

지난해에 피괴피망이 우리의 나이린 청소년들을 유인합치하여 남조선에 집단적으로 끌고가려 하다가 발각된 사건은 반공화국대결방위사들이 《인권보》라는 수필물에 우리 혁명대오에서 사람들을 떼어내기 위해 얼마나 발광하고있는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해주었다.

유인합치, 강제여류, 강제압송, 이것이 그들이 떠드는 《인권보》이다.

그 사건의 공범자, 배후조종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북조선자유연합》 대 표라는 년이 《미국무성과 긴밀하게 공조》하였다고 토벌한것은 우리의 일심단결에 파멸을 내고 《인권문제》를 조작하는데 미행정부가 깊숙이 개입되어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지금도 종교의 탈을 쓴 인신매매업자들이 우리 주민들을 남러로 판계일이 유인합치하여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써먹으려고 우리 나라 북부북경과 잇닿은 지역들을 쏘다니고 있다.

인권문제는 우리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과 남조선피괴당에게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백인경찰이 감행한 흑인청년사살민행에 항거하는 시위자들의 투쟁으로 새 사회가 밀부러져 뒤흔들리고 있다.

술한 인권현물들을 통채로 안고있는 미국이 제 손아귀에 틀어쥔 유엔인권리사회를 리용하여 우리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위원회》라는것을 날치기로 만들어내고 유엔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조작해낸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행위가 아닐수 없다.

보다 엄중한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이번 《인권결의》를 조작하면서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거론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최고존엄은 일심단결의 중심이고 승리의 기치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운명의 전부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여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파괴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켜버리는 극악무도하고 어리석은 망상을 하고있다.

이번 《결의조작》에 가담한 주범과 공범자들은 전후에 용서 못할 대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제 벌어지게 될 초강경대응전의 파멸적인 미국을 비롯하여 이 범죄적민행에 가담한 세력들이 다 틀어있다.

셋째로 그 범죄적목적은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의 합법적범분을 마련하는 데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사위원회》를 내온것은 무력침공을 전제로 한것이다. 그것은 남조선의 《동아일보》가 《조사위원회》조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무력개입할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유엔의 이름으로 쌓이는셈이다.》라고 평한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실지로 그 《조사위원회》는 박근혜당시 품을 낳아 걸들인 악질적인 《탈북자》들의 《증언》을 적어 기초자료로 쌓아놓았다.

세계는 미국이 만전쟁과 발간전쟁 등을 《인권문제》를 걸고 감행한데 대하여 있지 않고있다.

미국은 이번에 조작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유엔총회 전권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상정시키려 하고있으며 우리의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는것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틀어쥐고 나가겠다고 떠벌이고있다.

총적으로 말하여 이번 대조선《인권결의》조작은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미국의 범죄적인 압살전략의 총적산물이다.

미국의 《인권법》은 로골적인 군사적침략의 전주곡이다.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는 미국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천지원수, 백년수적이러는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유엔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새 세계건설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배치되지 주권중심의 기본원칙을 버리고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실행의 완주장으로 되어가고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놀다가는 유엔의 존재 자체가 위험에 빠질수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한사코 유엔의 이름을 빌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기 주권과 제도,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다.

미국이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것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꿈이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모든것을 앗아가려는자들은 그 어떤 용서도 자비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 혁명무력은 극악한 범죄적민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으로 단호히 쓸어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우리는 진리가 어떻게 수호되고 정의가 부흥되는것을 늘 뜨겁고 어떻게 승리를 거둘수 있는것을 보여줄것이다.

문 평 원

## 《자유》의 간판밑에서 감행되는 인권유린범죄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1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유》의 너신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짓 밟 히 는 생 존 권**

《매개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국내자산의 60%를 거머쥔 유색의 0.02%에 불과한 부유층만이 이런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의사관려들과 일반근로자들의 임금차이가 400배나 되며 4 000여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때나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 명목하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들 돈이 없어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 해마다 돌림감기로 인한 사망자는 약 6 000명, 폐렴사망자는 약 4 만명, 천식에 의한 사망자는 15만여명, 흡연에 의한 사망자는 40만명에 달하고있다.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는데 30.9초당 1건의 살인사건이, 5.7분당 1건의 강간사건이, 1.2분당 안 에 1건의 강 탈 사 건

나 이 제 리 아 의 인 러 네 트 에 실 린 글

학대현상은 매우 엄중하다. 몇몇 전 조지아주에서는 간수들이 수감자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철창과 철의자에 동여매놓고 48시간동안 먹물과 물을 주지 않았으며 지어 위생에서도 못 가며 하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총 기 류 범 죄**

《우리는 왜 미국인들이 매해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총기류범들과 총기문화를 계속 유지하고있는지, 언제쯤이면 사망자수를 줄일수 있겠는지 묻고있다.》

이것은 영국신문 《런던 타임스》에 실린 글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무기소지자는 처벌받을수 없는 권리》라는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개인들의 총기류소유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있다.

미국잡지 《타임》은 《15 초, 31발 사격, 19명 살상》에

**이 슬 람 교 에 대 한 증 오**

몇몇 전 아프리카나에 있는 한 미군기지에서는 이슬람교의 성전인 코란경을 소각하고 성경기둥에 처형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발생 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이

미국이 9.11사건이후 이슬람교와의 전쟁을 선포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로박》을 때려며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들어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군사작전은 사실상 이슬람교 말살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군사작전으로 하여 수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살해되었다.

**극 심 한 인 종 차 별**

1963년에 발표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정산에 관한 유엔선언》 제1조에서는 인간종, 피부색 또는 종족출신에 따라 차별하는것을 유엔헌장의 원칙에 대한 부정으로 락 인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극심한 인종차별을 받고있다. 2013년 11월 미국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백인들의 빈공률이 11.1%인데 비해 흑인들의 빈공률은 25.4%, 라틴아메리카계, 아시아계주민들의 빈공률은 각각 28.2%, 16.7%에 달하였다. 해마다 8만 4 000여 명의 흑인들이 치료를 제대로

미국 각지에서 최근 인종차별반대시위 계속 고조

미국은 이슬람교도들을 모독하고 짓밟는 행위도 레사롭게 저질렀다. 이슬람교의 예언자를 모독하는 영화를 만들어 내뿜던것도 바로 미국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신앙중》을 운운하며 《종교재판관》 행세를 끝낼 해했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미국은 《신앙중》, 《종교재판관》이 아니라 종교를 탄압하는 법인으로서 국제법정의 피고석에 나서야 한다.

미국에서 소수민족주민들은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살인범죄의 희생물로 되는 흑인들의 수는 백인보다 5배나 더 많다.

2014년 8월 미주리주 피구스에서 백인경찰이 18살 흑인청년인 쥘로에 쏘아죽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미주리주의 스톤 루이스시에 흑인청년인 백인경찰이 쏘아죽인 사건이 또 일어났다.

미국에서 인종차별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 각지에서 최근 인종차별반대시위 계속 고조

미국에서 인종차별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 각지에서 최근 인종차별반대시위 계속 고조

미국에서 인종차별행위를 반대하여 시위

미국에서 인종차별행위를 반대하여 시위